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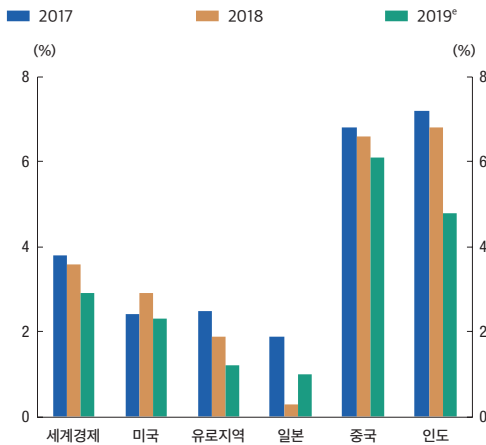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2019년 중 세계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교역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 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일본은 전년보다 성장률이 높아졌으나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부진으로 분기별 흐름으로는 성장세가 점차 둔화⁸⁾되었으며 유로지역도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신흥국의 경우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인도는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상당폭 하락하였다.

그림 II - 1. 세계경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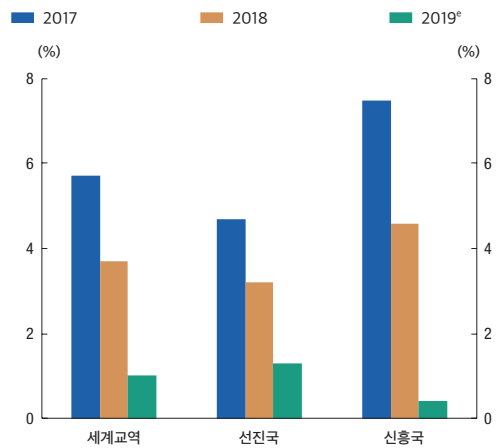


자료: IMF

세계교역 부진

2019년 세계교역(물량 기준)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상품교역은 중국⁹⁾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큰 폭 하락하였다.

그림 II - 2. 세계교역 신장률¹⁾



주: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기준
자료: IMF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연평균 기준으로 2018년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상반기 중에는 주요 산유국 감산¹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¹¹⁾ 등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다가 5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8) 2019년 분기별 일본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은 1/4분기 0.6%, 2/4분기 0.5%, 3/4분기 0.1%, 4/4분기 -1.6%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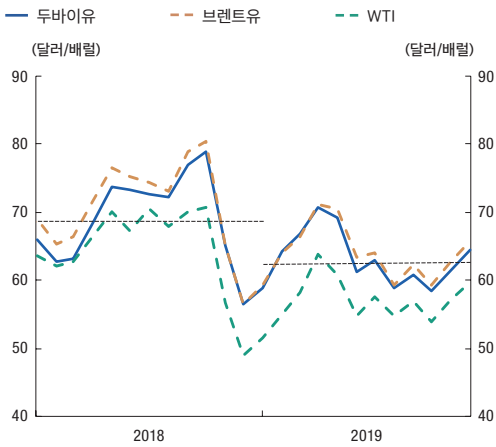
9)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에 따르면 2019년 1~11월 중 중국의 상품교역 증가율(수입물량 기준, 전년동기대비)은 -2.0%로 2018년(8.5%)에 비해 큰 폭 하락하였다.

10)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은 2019년 1~6월 중 원유생산량을 2018년 10월 대비 일평균 12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11) 리비아 내전이 4월 이후 격화되었으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미국 내 계좌 동결 등의 금융제재를 부과(1월 28일)하였다.

에 따른 석유수요 부진 우려로 하방압력이 지속되었으나 11월 이후 OPEC+¹²⁾ 추가 감산,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 등으로 60달러대 중반까지 반등하였다.

그림 II - 3. 국제유가 (월평균)



주: 1) 가로선은 해당연도 평균(두바이유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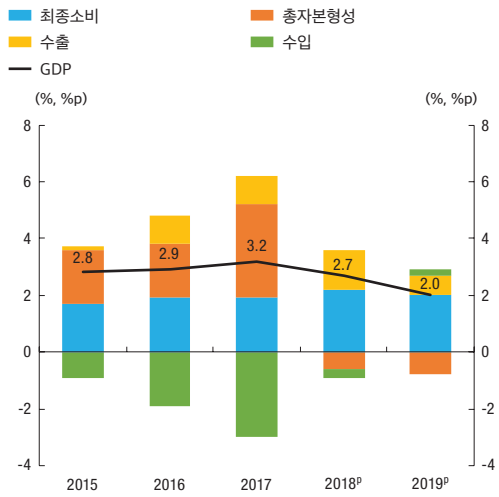
나. 국내경제

(1) 경제성장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

2019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소비 및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8년(2.7%)보다 낮은 2.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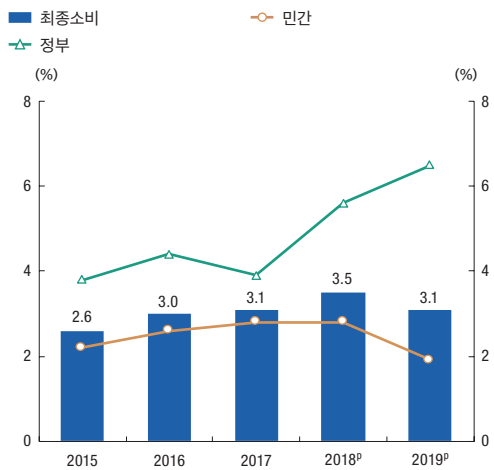
그림 II - 4.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실질)



자료: 한국은행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민간소비가 둔화되었으나 정부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3.1% 증가하였다. 민간소비는 고용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의 영향으로 1.9% 증가에 그쳤다.

그림 II - 5. 소비 동향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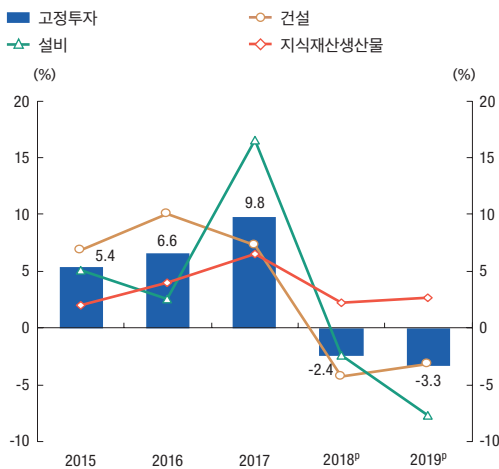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2) OPEC+는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 10개국의 연합체를 의미한다.

고정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전년대비 3.3% 감소하였다.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IT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확대되고 운송장비도 감소 전환하면서 전년대비 7.7% 줄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1% 감소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투자와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모두 늘면서 2.7% 증가하였다.

그림 II - 6. 고정투자 동향 (실질)



자료: 한국은행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재화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및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며, 석유화학제품은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 증설설비 가동 등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사드 문제로 크게 감소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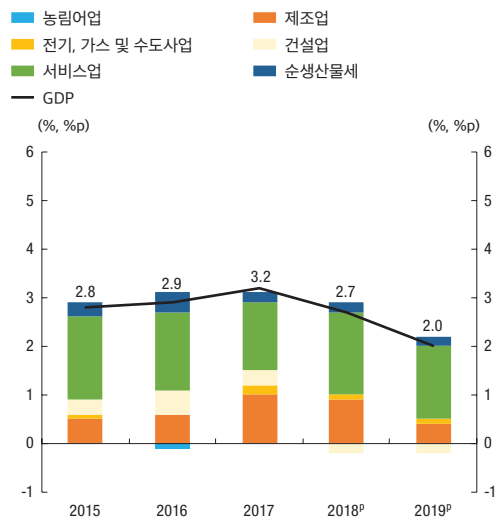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서비스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조정에 따른 자

본재 수입 부진으로 재화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제조업 성장세 둔화 지속 및 서비스업 약화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서비스업 성장세도 약화되었다. 건설업 생산은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그림 II - 7. GDP 성장률 및 경제활동별 기여도 (실질)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은 IT부문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비IT부문의 부진으로 2018년(3.4%)보다 둔화된 1.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이외 제조업종은 글로벌 업황 악화 및 국내외 설비투자 축소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부진하였다.

표 II - 1.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				
	2015	2016	2017	2018 ^p	2019 ^p
제조업	1.7	2.3	3.7	3.4	1.4
화학제품	4.2	0.5	3.4	3.7	-1.0
1차금속	1.0	1.2	2.9	0.3	-0.6
금속제품	8.1	-0.1	-0.3	-4.8	-3.1
컴퓨터, 전자 및 광학	1.6	10.3	4.8	10.1	6.5
기계 및 장비	-1.1	-4.4	22.5	1.5	-1.1
운송장비	0.1	1.6	-8.1	2.7	2.1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은 2018년(3.2%)보다 낮은 2.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은 2018년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이외 대부분 업종에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표 II - 2.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				
	2015	2016	2017	2018 ^p	2019 ^p
서비스업	3.1	2.9	2.6	3.2	2.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	2.7	1.8	2.3	1.1
운수업	2.4	0.4	2.7	2.7	0.2
금융 및 보험업	7.5	1.9	4.2	5.6	4.5
사업서비스	5.0	2.2	2.0	1.7	2.0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4.7	7.3	6.4	8.1	8.3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은 건물 건설 중심의 조정양상이 이어지며 전년대비 3.0% 감소하였다. 농림어업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각각 2.4%, 4.6%를 기록하여 2018년보다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2) 고용 및 임금

취업자수 증가 규모 큰 폭 확대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2018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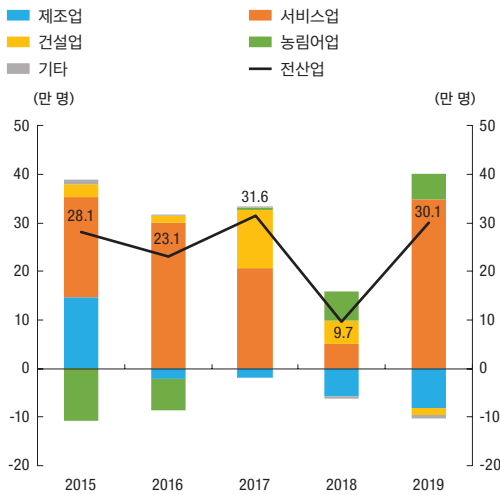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에 힘입어 보건·사회복지업,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제조업은 전기·전자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건설업은 건설투자 부진 지속 등으로 감소하였다.

표 II - 3. 고용 관련 지표

	(만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활동인구	2,715	2,742	2,775	2,790	2,819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2	1.0	1.2	0.5	1.0
경제활동참가율	62.8	62.9	63.2	63.1	63.3
취업자수	2,618	2,641	2,672	2,682	2,712
취업자수증감	28.1	23.1	31.6	9.7	30.1
실업률	3.6	3.7	3.7	3.8	3.8
(15~29세)	9.1	9.8	9.8	9.5	8.9
고용률	60.5	60.6	60.8	60.7	60.9
(15~64세)	65.9	66.1	66.6	66.6	66.8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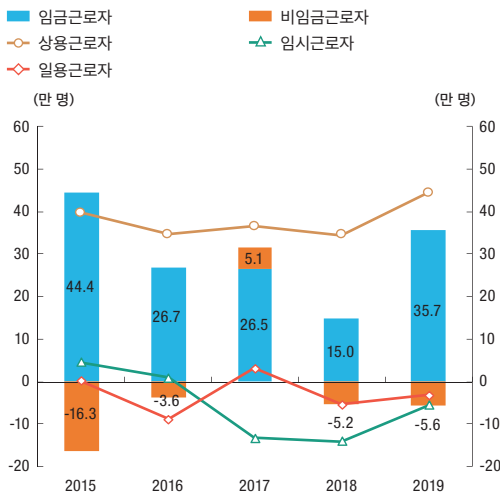
그림 II - 8.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 증가폭이 커진 반면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 감소폭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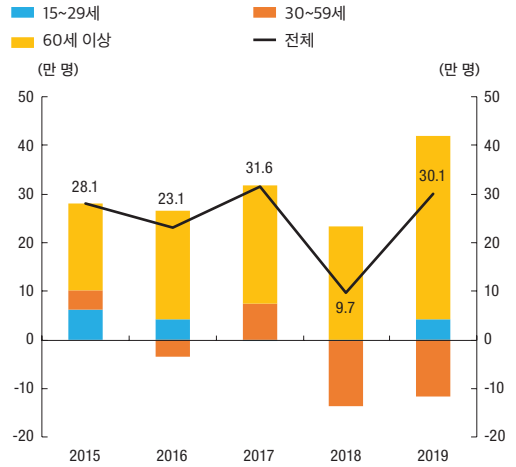
그림 II - 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수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15~29세 취업자수는 증가 전환하였으며 30~59세는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그림 II - 10.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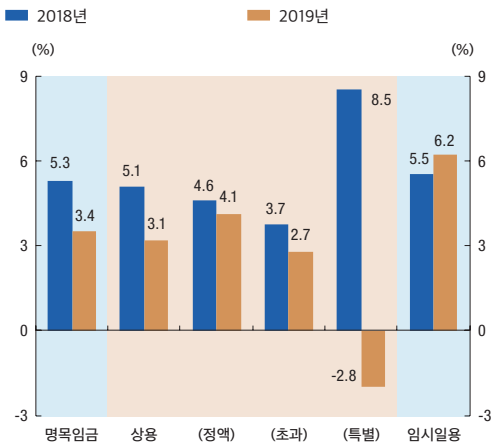
고용률은 취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전체 실업률이 3.8%로 전년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9%로 전년보다 0.6%p 하락하였다.

임금 상승폭 축소

명목임금은 3.4% 상승하여 2018년(5.3%)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특별급여 감소 전환 등으로 둔화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높아졌다.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오름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그림 II - 11. 종사상지위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표 II - 4. 임금 지표

	(%)				
	2015	2016	2017	2018	2019
명목임금 ¹⁾	3.0	3.8	3.3	5.3	3.4
(실질임금) ²⁾	2.3	2.8	1.3	3.7	3.0
시간당명목임금 ³⁾	2.5	5.1	5.2	6.8	3.9
노동생산성 ⁴⁾	0.7	3.1	3.9	4.1	1.5
단위노동비용 ⁵⁾	1.8	2.0	1.3	2.6	2.4

주: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3) 물가

소비자물가 오름세 둔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연평균 기준) 0.4% 상승하여 2018년(1.5%)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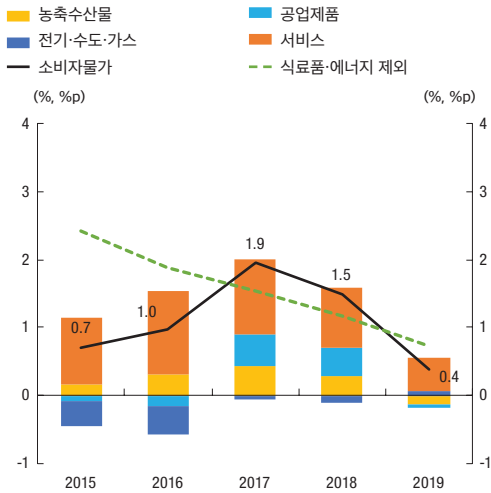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상반기 중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약세를 보인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중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¹³⁾로 큰 폭 하락하였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나, 석유류제외 공업제품가격 상승률은 0.7%로 전년(0.5%)보다 소폭 확대되었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상승률은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1.5%를 기록하였다. 한편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0.9%를 기록하여 전년(1.6%)보다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서비스물가는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¹⁴⁾과 같은 복지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도 2018년(1.2%)에 비해 상당폭 낮아진 0.7%를 나타내었다.

13) 2018년 3/4분기 중 농축수산물가격은 폭염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6.5% 상승하여 예년 평균수준(2009~2018년 중 2.5%)을 크게 상회하였다.

14) 고교 무상교육이 2019년 9월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0년 중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림 II - 12.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율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하락 후 상승 전환, 전세가격 하락 폭 축소

주택매매가격은 연중 0.4%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상반기 중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큰 폭의 오름세로 전환되었다. 비수도권은 3/4분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4/4분기 중에는 일부 광역시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승 전환하였다.

주택전세·월세가격은 재건축 이주 및 청약대기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4/4분기 들어 수도권이 상승 전환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표 II - 5. 주택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2018	2019				
		연간	I	II	III	IV
주택매매가격	1.1	-0.4	-0.4	-0.5	-0.1	0.7
<수도권>	3.3	0.5	-0.5	-0.5	0.2	1.3
<비수도권>	-0.9	-1.1	-0.4	-0.5	-0.4	0.2
주택전세가격	-1.8	-1.3	-0.7	-0.7	-0.3	0.4
주택월세가격	-1.1	-0.8	-0.3	-0.4	-0.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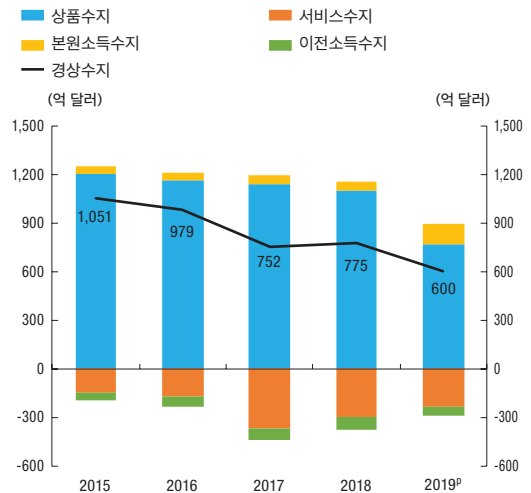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4)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 축소

경상수지는 600억 달러 흑자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면서 2018년보다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위축,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 등으로 흑자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며 본원소득수지는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수취 증가로 흑자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림 II - 13.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수출 감소

수출(통관 기준)은 5,42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0.4% 감소하였다. IT제품 수출은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무선통신기기가 스마트폰 시장 축소 등으로, 디스플레이패널이 LCD 단가 하락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하면서 주요 품목이 모두 부진하였다. 비IT제품 수출의 경우 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과 화공품이,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기계류 등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는 미국과 EU 지역에서 SUV 및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으로 증가하였다.

표 II- 6. 주요 품목별 수출

	2018		2019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 제품	11.5	<36.4>	-19.7	<32.6>
반도체	28.9	<21.4>	-25.4	<17.8>
무선통신기기	-22.7	<2.8>	-17.6	<2.6>
디스플레이패널	-9.9	<4.1>	-17.0	<3.8>
컴퓨터	18.5	<1.7>	-14.7	<1.6>
비IT 제품	2.2	<63.6>	-5.0	<67.4>
자동차	-1.3	<10.5>	2.4	<12.0>
석유제품	32.5	<7.8>	-12.0	<7.6>
화공품	12.6	<12.2>	-8.9	<12.4>
기계류	9.9	<9.6>	-2.4	<10.4>
선박	-49.9	<3.4>	-5.6	<3.6>
총수출 ¹⁾	5.4	[6,049]	-10.4	[5,422]

주: 1)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입 감소

수입(통관 기준)은 5,03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6.0% 감소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본재 수입도 설비투자 부진 등을 반영하여 반도체제조장비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소비재 수입은 직접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표 II- 7. 주요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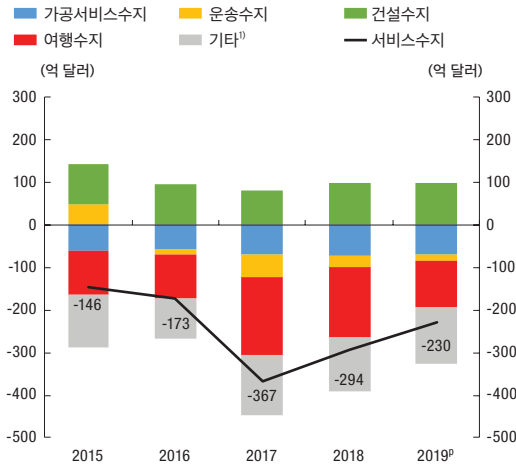
	2018		2019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19.7	<52.1>	-9.0	<50.5>
자본재	1.6	<32.6>	-5.6	<32.8>
전기·전자기기	4.8	<18.8>	0.1	<20.0>
기계류·정밀기기	-4.1	<11.3>	-16.2	<10.1>
(반도체제조장비)	-2.3	<3.6>	-44.6	<2.1>
소비재	10.9	<15.2>	3.6	<16.8>
총수입 ¹⁾	11.9	[5,352]	-6.0	[5,033]

주: 1) []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서비스수지는 230억 달러 적자로 2018년보다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을 중심으로 늘어난 반면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가공서비스수지 적자가 소폭 축소되었으며 운송수지도 글로벌 교역량 감소 등으로 적자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림 II - 14. 서비스수지



주: 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등 여타 서비스 수지 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5) 지역경제동향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강원권에서 음식료품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과 동남권에서는 각각 OLED 패널, 조선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충청권에서는 석유화학, LCD 패널 등의 부진으로, 호남권에서는 석유화학·정제, 철강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대경권에서는 철강, LCD 패널 등을 중심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모든 권역에서 보건·사회복지업 등의 호조로 증가하였다.

수요동향¹⁵⁾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제주권에서 면세점 판매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도권과 동남권에서도 증가하였다.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감소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제조업 업황 부진,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대체로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

었다. 건설투자는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건축착공면적이 주거용과 상업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은 대부분 권역에서 상당폭 감소하였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반도체 등이, 호남권과 동남권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이 특히 부진하였다. 대경권에서는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고용동향은 취업자수가 대경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수도권, 호남권 및 대경권에서 2018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권역에서는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상승 및 전기·수도·가스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교육·의료 관련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관련 서비스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 충청권 및 호남권에서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주택전세가격은 모든 권역에서 신규 입주물량 또는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하락하였다.

15) 지역별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매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II - 8. 2019년 권역별¹⁾ 주요 지표²⁾

	수도	동남	충청	호남	대경	강원	제주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²⁾	0.8	0.8	-1.9	-2.1	-3.3	2.2	-0.6
서비스업생산지수 ²⁾	1.7	0.5	1.1	1.5	0.9	0.3	2.3
수요							
소매판매액지수 ²⁾	2.0	0.3	-1.2	-0.6	-1.1	-0.6	10.7
설비투자 BSI ³⁾	93	92	92	93	85	97	101
건축착공면적 ²⁾	-7.9	-16.6	-23.4	10.7	-20.3	-19.3	-29.8
수출 ⁴⁾	-14.7	-1.6	-11.2	-11.1	-7.7	-0.4	-18.3
고용							
취업자수 증가 ⁵⁾	17.4	1.8	5.3	2.6	-0.3	2.3	1.0
실업률	4.1	3.8	3.3	2.9	3.8	3.6	2.1
물가							
CPI ⁶⁾	0.5	0.2	0.1	0.3	0.4	0.8	0.3
주택매매가격 ⁷⁾	0.4	-2.4	0.1	0.4	-0.8	-2.9	-2.8
주택전세가격 ⁷⁾	-0.7	-3.2	-0.9	-0.5	-0.8	-3.7	-2.9

주: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

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 3) 기준치=100

4) 통관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5) 전년대비 증가(만 명) 6) 전년대비 상승률

7) 전년말월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감정원